

황룡강 상수원 보호구역 18만㎡ 해제

20년만에 ... 장성읍·서삼면 등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장성군내 황룡강 주변의 대규모 상수원 보호구역이 20년 만에 해제돼 군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기업유치가 가능해지는 등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장성군은 6일 “황룡강 공설운동장 주변 18만529㎡(5만4천여평)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돼 군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황룡강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 1988년부터 광주시의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지정됐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는 보호구역 15km 이내에 골프장과 호텔 등 체육시설 및 위락시설 신축이 제한됐



다.

장성군은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04년 일부가 해제되고 이번에 공설운동장 주변이 해제

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치로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등 4개 읍·면 주민들의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와 기업유치가 가능해져 지역의 역동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황룡강 송정 취수장과 장성 남면 취수장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3.15㎢)이 광주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동북호의 상수원 공급이 확장됨에 따라 해제됐다.

그러나 장성군이 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장성읍 유당저수지와 예비 상수원인 영천취수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지된다.

/장성=류종선기자 yjs52@



영산강변 노~란 유채꽃 활짝

6일 나주시 영산강변에 조성된 유채꽃 단지가 노랗게 물들었다. 나주시는 오는 10~12일 영산포 둑치 체육공원 일대에서 '2009 영산포 흥어축제'를 개최한다.

/최현배기자 choi@

완도 전복·장흥 미역·진도 김 양식

전남도, 친환경 대규모 어장 3곳 조성

친환경 기준에 맞게 경지정리 식으로 배치된 대규모 어장이 완도와 장흥, 진도군에 조성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안가에 불규칙하게 들어서 있는 양식어장을 재배치해 도내 양식산업을 규모화하고 집단화시키는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완도와 장흥, 진도군 관내 해역 3곳에 양식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역마다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식어장 재배치를 위한 측량작업에 들어갔다.

완도는 전복과 다시마 복합양식단

지가, 장흥은 미역양식단지가, 진도에는 김 양식단지가 조성되며 단지별 규모는 100㏊를 웃돈다.

양식단지는 친환경 기준에 맞는 경지정리 식으로 어장이 배치되며 표준화된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해상 경관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양식단지는 지난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측량 등 단지조성을 위한 1단계 착공에 들어갔으며 이를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히 양식단지 조성과는 별도로 능성이나 참동 등을 바다 기두리 양식시험 결과가 성공함에 따라 ‘양식섬’을 만들고 기업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대규모 양식장과 양식섬이 들어서면 이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 어업인의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경기, 장흥은 미역양식단지가, 진도에는 김 양식단지가 조성되며 단지별 규모는 100㏊를 웃돈다.

양식단지는 친환경 기준에 맞는 경지정리 식으로 어장이 배치되며 표준화된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해상 경관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양식단지는 지난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측량 등 단지조성을 위한 1단계 착공에 들어갔으며 이를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히 양식단지 조성과는 별도로 능성이나 참동 등을

바다 기두리 양식시험 결과가 성공함에 따라 ‘양식섬’을 만들고 기업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대규모 양식장과

양식섬이 들어서면 이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수산물을 생

산, 어업인의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경기, 장흥은 미역양식단지가, 진도에는 김 양식단지가 조성되며 단지별 규모는 100㏊를 웃돈다.

양식단지는 친환경 기준에 맞는 경지정리 식으로 어장이 배치되며 표준화된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해상 경관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양식단지는 지난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측량 등 단지조성을 위한 1단계

착공에 들어갔으며 이를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히 양식단지

조성과는 별도로 능성이나 참동 등을

바다 기두리 양식시험 결과가 성공함

에 따라 ‘양식섬’을 만들고 기업화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대규모 양식장과

양식섬이 들어서면 이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수산물을 생

산, 어업인의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경기, 장흥은 미역양식단지가, 진도에는 김 양식단지가 조성되며 단지별 규모는 100㏊를 웃돈다.

양식단지는 친환경 기준에 맞는 경지정리 식으로 어장이 배치되며 표준화된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해상 경관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양식단지는 지난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측량 등 단지조성을 위한 1단계

착공에 들어갔으며 이를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히 양식단지

조성과는 별도로 능성이나 참동 등을

바다 기두리 양식시험 결과가 성공함

에 따라 ‘양식섬’을 만들고 기업화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대규모 양식장과

양식섬이 들어서면 이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수산물을 생

산, 어업인의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경기, 장흥은 미역양식단지가, 진도에는 김 양식단지가 조성되며 단지별 규모는 100㏊를 웃돈다.

양식단지는 친환경 기준에 맞는 경지정리 식으로 어장이 배치되며 표준화된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해상 경관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양식단지는 지난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측량 등 단지조성을 위한 1단계

착공에 들어갔으며 이를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히 양식단지

조성과는 별도로 능성이나 참동 등을

바다 기두리 양식시험 결과가 성공함

에 따라 ‘양식섬’을 만들고 기업화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대규모 양식장과

양식섬이 들어서면 이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수산물을 생

산, 어업인의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경기, 장흥은 미역양식단지가, 진도에는 김 양식단지가 조성되며 단지별 규모는 100㏊를 웃돈다.

양식단지는 친환경 기준에 맞는 경지정리 식으로 어장이 배치되며 표준화된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해상 경관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양식단지는 지난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측량 등 단지조성을 위한 1단계

착공에 들어갔으며 이를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히 양식단지

조성과는 별도로 능성이나 참동 등을

바다 기두리 양식시험 결과가 성공함

에 따라 ‘양식섬’을 만들고 기업화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대규모 양식장과

양식섬이 들어서면 이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수산물을 생

산, 어업인의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경기, 장흥은 미역양식단지가, 진도에는 김 양식단지가 조성되며 단지별 규모는 100㏊를 웃돈다.

양식단지는 친환경 기준에 맞는 경지정리 식으로 어장이 배치되며 표준화된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해상 경관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양식단지는 지난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측량 등 단지조성을 위한 1단계

착공에 들어갔으며 이를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히 양식단지

조성과는 별도로 능성이나 참동 등을

바다 기두리 양식시험 결과가 성공함

에 따라 ‘양식섬’을 만들고 기업화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대규모 양식장과

양식섬이 들어서면 이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수산물을 생

산, 어업인의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순천대 박물관 내일 문연다

지상 3층 규모 전시실 3개 갖춰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8일 문을 연다.

6일 순천대학교에 따르면 장만체 순천대 총장과 조현종 국립광주박물관장은 비롯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8일 오후 3시 신축 박물관 개관식을 갖는다.

지난 2006년 7월 착공한 박물관은 대지면적 30만9천59㎡에 연건축면적 5천864㎡,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실 3개와 다양한 수장 공간을 갖추고 있

다.

박물관은 전남 동부지역의 백제, 신라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이 전시될 ‘고고역사실’, 매천 황현 선생이 남긴 고문서 등을 전시한 ‘강운 최승효 기증실’, 순천 겸단산성의 원형을 재현한 ‘겸단산성 특별전시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양원역 순천대 박물관장은 “전남 동부지역 문화 유적에 대해 학술조사를 하고, 그동안